

피할 수는 있어도 숨을 곳은 없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는 10년동안 10배 이상 빨라졌으며, 기억장치의 가격은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오늘날 그 흔한 전자레인지, 비디오, 자동응답전화기, 레이저프린터, 콤팩트디스크, 팩시밀리 등이 10년 전에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10년 후 콤팩트디스크는 음반 시장을 점령했으며, 컴퓨터는 타자기시장을 황폐화 시켜버렸다. 지금부터 10년후, 도서관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컴퓨터는 도서관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도서관을 황폐화시킬 것인가? 예측은 악덕이라 하였지만 10년후의 도서관은 적어도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은 틀림없다.

최근의 정보처리에는 문자 뿐만 아니라 텍스트, 정지·동화상, 소리데이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와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통합화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보고 듣고 느끼며, 보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친숙하게 대화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제2의 산업혁명이라는 멀티미디어시장은 매년 70% 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초고속통신망을 배경으로 새로운 폭발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멀티미디어시대를 상징하는 가상현실기법과 함께 모든 자료를 디지털형식으로 축적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검색하는 소위 차세대 도서관시스템인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 혹은 virtual library)에 대한 연구와 국제회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차츰 실체가 나타나고 있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디지털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장소와 특정 기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짐으로써 도서관과 문헌정보학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작방법도 변화시킬 것이다. 종이만이 정보의 생산, 보존, 배포, 이용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벌써 종이로서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정보를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가까운 장래에는 서가에 책을 꽂는 것보다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더 싸질 수도 있다. 현재에는 정보의 양, 데이터형식, 프로토콜, 기밀보안, 그리고 사회, 경제, 법률적인 한계가 있지만,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디지털도서관은 실현될 것이 틀림 없다.

또한 엄청난 국력을 집중시켜 구축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시간, 거리, 장소, 소장기관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액세스하는 것이 정책적, 기술적, 정보봉사적 측면에서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정착됨으로써 많은 정보시스템들이 자관의 이용자 뿐만 아니라 관외의 불특정다수에게도 개방될 것이다. 어느 한 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생산되자마자 이미 그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수도, 전기, 가스 등과 같이 공공재화라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고속도로가 완성되었을 때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첨단기술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정보고속도로에 어떤 화물을 어떻게 실어보낼 것인지에 대한 사용전략을 세우는 데 화급을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략을 세우기는 커녕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

문헌정보학과 과학기술의 통합화 경향은 우리가 이와 같이 소극적으로 주춤거리고 있는 동안 시대의 흐름과 다른 분야 사람들에 의해 계속하여 앞으로 치닫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 되고 있

다. 도서관전산화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10년전에 모두 끝나 정보이용자의 기본적인 환경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금은 시스템의 색깔을, 크기를, 편리함을, 친근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도서관은 시급히 전산화되어야 한다. 이 많은 상품과 고객을 가진 사업 중에서 도서관 이외에 이처럼 지지부진한 분야를 본 적이 있는가? 도서관이 전산화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도서관전산화시스템은 책을 끓기 위해서 서가를 준비하는 것과 같으며, 이용자를 위하여 열람테이블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가격이 쪼들리면서도 자동차를 사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정보처리기술이 일본과 5년, 미국과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이용 및 응용기술과 우리 분야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초점이 예산, 기술 등이 아니라 협력과 인식의 전환을 하지 못한 것에 있다면 모든 책임은 더더욱 우리가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정보기술의 변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술의 변화가 종전과 같이 단순히 도구의 변화라고 안일하게 보아서는 안된다. 이것은 오랜동안의 생활방식, 사고방식, 인간관계 등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변혁이며 이 소용돌이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수수방관할 수도 없다. 변화가 별거 아니라고, 변화에 동참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못 보았거나 옛것을 고수하고 옛것에 안주하려는 인간성향의 허세이고 자위일 뿐이다. 이와 같은 흐름 중 우리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의 의사대로 주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설자리는 좁아질 수 밖에 없으며 결국은 도태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변화의 흐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즉시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데 크나큰 문제가 있다. 일시적으로 피할 수는 있어도 결코 숨을 곳은 없다.

다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흐름 중 우리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면 좋은 것, 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어느 것이 우리 것이고, 어느 것이 우리 것이 아닌지”에 대해 겸허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고민하고 토론하며 중의를 모아 관련부분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 없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가까운 장래의 변화에 대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매도해서는 안된다. 또한 일부의 견해가 대다수의 견해인 것처럼 오도되어서도 안되며, 이를 잡기 위해 추가삼간을 태워서도 안 될 것이다. 문헌정보학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하여 자성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해서도 안된다. 이제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늦었지만 문헌정보학의 넓이와 깊이에 대하여 다함께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